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 SEMI- DEFINITIVE LIST OF WORST NIGHTMARES

가제 : 죽도록 무서운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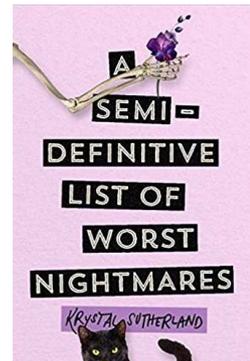
저자 : Krystal Sutherland

출판사: G.P. Putnam's Sons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YA 로맨스



*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 독일, 폴란드, 브라질, 스웨덴 판권 계약 체결

* 20개국에 출간된 데뷔작 「**OUR CHEMICAL HEARTS**」로 호평 받은 작가의 두 번째 소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은 절대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혼자 집에 돌아오라는 엄마의 연락을 받은 에스더는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일이라 그리 놀랍거나 서럽지도 않았다. ‘악마처럼 눈이 샛노란 까만 고양이’가 차 지붕 위에 앉아 있었다니, 그 정도면 엄마가 절대 운전대를 못 잡겠다고 할 만한 불길한 조짐이었다.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에스더의 가족에겐 모두 의미가, 그것도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에스더가 손녀딸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죽음의 사자에게 저주를 받은 날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됐다. 가족 모두가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죽을지 몰라 벌벌 떨며 사는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 각자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지독히도 무서운 저주는 그렇게 할아버지는 물론 부모님과 에스더, 두 쌍둥이 남동생의 머리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에스더의 아버지는 극심한 광장공포증에 지하실로 숨어들어 벌써 6년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스스로 갇혀 사는 길을 택했다. 두 남동생 중 한 명은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고 둘 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에는 머물지 못한다. 그리고 엄마는 불길한 조짐이 실낱같이 나타나기만 하면 몸을 사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도 불길하다고들 이야기하는 검은 고양이가 엄마 눈에 띄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었다. 에스더는 두말 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와 멀리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다. 에스더의 불운은 그곳에서 시작됐다.

한산한 정류장에는 에스더 말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 키가 큰 흑인 남자 같았는데 에스더가 도착했을 때 얼굴을 푹 숙이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에스더 역시 위험할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 편이라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지만, 점점 격해지는 그 남자의 울음소리는 모른 척하기 힘들었다. 괜찮으냐고 말을 건네자마자 고개를 든 남자는 소매치기를 당해서 차비가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에스더와 유치원을 함께 다닌 어릴 적 친구, 조나였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조나는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하필 학교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 때문에 현금을 꽤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는 친구를 믿고 돈을 밀려준다. 고맙다며 조나는 금방 사라지고, 좀 지나서야 에스더는 자신이야말로 ‘탈탈 털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조나가 가져간 건 에스더가 건넨 돈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주신 팔찌, 아이폰, 사탕, 도서관 대출카드, 책,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리한 메모까지 싹 사라졌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저주는 내려졌지만 자신이 뭘 가장 무서워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에스더는 생각이 날 때마다 목록을 채워 넣는 중이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 거미, 인형, 거울, 바늘, 새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황당한 소매치기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삶까지 다 들켜버린 에스더와 다시 만난 조나는 뜻밖의 제안을 한다. 다 쓸데없는 공포일지도 모르니, 과감하게 하나씩 정면돌파 해보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가족들을 보며 갑갑하고 괴로웠던 에스더는 그 제안을 선택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주말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50가지를 직접 시도해본다. 스카이다이빙, 말 타기, 양봉,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등 기상천외한 일들을 함께 시작한 두 사람은 후보에 올릴 생각도 못했던 것, 어쩌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과 갑자기 마주한다. 바로 사랑이었다.

서로에게 애뜻한 감정을 느끼지만 다시 없을 우정이 깨질까 두려워 애써 마음을 숨기는 두 사람. 두려움을 극복하려다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에 머물지 않고 살인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어우러져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 소개>

크리스탈 서덜랜드(Krystal Sutherland)는 호주에서 태어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재학 당시 학내 잡지 편집장을 맡았다.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잡지 편집장, 호주 최대 청소년 문화 웹사이트 ‘Hijacked’의 해외통신원으로 일했다. 호주 ‘퀸즐랜드 젊은 작가상(Queensland Young Writers Award)’ 결선 후보에도 올랐다. 2016년에 발표한 데뷔작 『OUR CHEMICAL HEARTS』는 20개국에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제목 : THE MOUNTAIN BETWEEN US

가제 : 산 건너 너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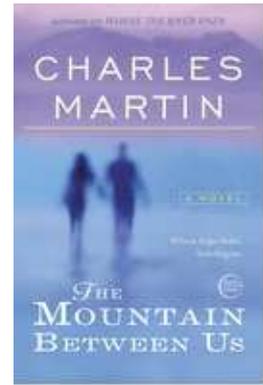
저자 : Charles Martin

출판사: Broadway Books

발행일: 2011년 6월 2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로맨스



*** 올 10월, 20세기 폭스 제작, 케이트 윈슬릿, 이드리스 엘바 주연 영화로 개봉될 예정**

*** 우연한 만남, 산악 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벌이는 사투 속에 피어난 뜻밖의 사랑**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 속의 허전함을 문득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존재조차 몰랐던 공허가 이제부터 채워지고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작가로서 꽤 성공하고 얼마 후 결혼을 앞둔 애슐리도 더 큰 무언가를 바란 적은 없었고 유능한 의사인 벤 역시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큰 변화를 꿈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1월의 어느 날, 공항에 발이 묶인 두 사람은 각자가 소중하다 생각했던 그 일상으로 조금 더 일찍 돌아가기 위해 한 팀이 되고 그 선택은 둘의 운명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눈보라와 폭풍이 거세게 일던 밤, 애슐리는 애틀랜타로 돌아가기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면 그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결혼식이라,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서 완벽하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의학 컨퍼런스 참석 차 이곳에 온 벤 역시 바로 다음 날 중요한 수술이 줄줄이 잡혀 있어 얼른 가서 좀 쉬고 컨디션을 가다듬고 싶었다. 하지만 들이 붓는 눈 더미를 치우던 제설차가 결국 고장이 나는 바람에 결국 그날 밤 애슐리와 벤이 타려던 비행 편은 결항된다. 이대로 발이 묶이나 절망하던 것도 잠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벤은 소형 비행기를 보유한 파일럿을 찾아낸다. 그는 엔진 하나짜리 자신의 비행기를 전세기로 대여하고 싶다는 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덴버까지 폭풍을 뚫고 데려다 주기로 한다. 대신 비행기 구조상 균형을 맞추려면 승객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파일럿의 설명에 벤은 자신 못지않게 다급해 보이는 애슐리에게 탑승을 제안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제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안심한 찰나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파일럿에게 심장마비가 찾아온 것이다. 쓰러져버린 파일럿, 조종할 사람이 없는 비행기는 눈보라 속에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비행기가 추락한 곳은 유타 주 북동부의 하이 유인타스 자연보호구역. '오지'로 분류되는 이 산악지대에 갈비뼈가 부러진 벤과 다리가 골절된 애슐리, 그리고 파일럿의 애완견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나마 벤은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지만 애슐리는 다리 때문에 꼼짝도 못한다. 자신 때문에 벤도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았던 애슐리는 먼저 산을 내려가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그는 애슐리의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내려가기로 마음을 이미 정했다. 두 사람이 탄 전세기가 그 날 공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은 파일럿의 아내 한 사람 뿐이고, 비행 스케줄상 길게는 3일이 지날 때까지 아내는 남편의 연락이 없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을 상황이었다. 누구든 이 사태를 알아채고 구조대를 보낼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고 어둠이 잠긴 겨울 산속은 공기까지 쾅쾅 얼어버릴 것만 같은 강추위에 휩싸인다. 어떻게든 산을 내려가 직접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행히 벤이 의사라 필요한 응급조치는 척척 해내고, 평소에 워낙 등산을 즐기던 사람이라 가방에 등산 장비가 몇 가지 있어서 두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이었다. 그저 같은 비행기에 오른 서먹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산속에 덜렁 남겨져 생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함께 견디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애슐리의 눈을 사로잡은 건 벤의 녹음기였다. 사정이 있어서 아내와 떨어져 지낸다고 설명한 벤은 수시로 녹음기를 켜고 현재의 상황과 기분을 일기 쓰듯 아내에게 남기는 메시지로 남겼다. 아내를 매 순간 떠올리며 반드시 산을 내려가 다시 건강하게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의 다정한 습관을 지켜보던 애슐리는 문득 그 속에 어딘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어쩌다 옛들은 녹음 내용으로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매일 새벽 4시부터 해변가 조깅을 시킬 정도로 사사건건 강압적이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벤은 고등학교 때 아내를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했지만, 마음만으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지속되는 건 아니었다. 결국 별거에 들어간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해도 시간이 갈수록 벤의 상처만 더해갔다. 이런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애슐리는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생존 싸움은 몇 주간 이어지고, 운이 좋아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날이 아니고는 쫄쫄 굶어야 하는 허기와 아픈 몸, 추위,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매 순간 싸우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던 두 사람은 조금씩 특별한 감정을 나누기 시작한다. 괴로운 상황에서도 위트 넘치는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애슐리에게 벤은 반짝이는 희망과 따뜻한 위안을 느끼고, 애슐리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도 느끼지 못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벤에게서 느낀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수록 두려움은 커져 간다. 마침내 산 아래에 도착해 살아남는다면,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둘은 눈 덮인 산 속을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고 한 걸음씩 내려간다.

<저자 소개>

찰스 마틴(Charles Martin)은 『A Life Intercepted』, 『Where the River Ends』 등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열 편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다.

제목 : STANDARD DEVIATION

가제 :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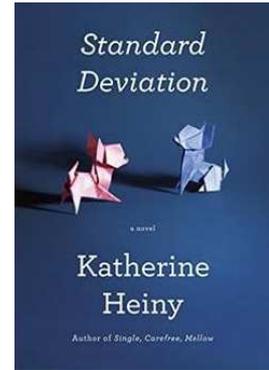
저자 : Katherine Heiny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7년 5월 2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코믹 여성소설



- *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 아마존 선정 **2017년 5월** 이달의 책(*Amazon fiction pick for May*)
- *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웃긴 책이 될 것” – 데일리 메일
- * **“300쪽이 넘는 분량에 작가의 유머러스한 음성과 다채로운 인물들이 가득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랑스러운 인물들이 긴 결혼생활이 어떤 것인지 멋지게 보여준다.”** – 커커스 리뷰

우리는 항상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계속 그 길을 떠올리는 건 아니지만 문득 하지 않은 선택을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계기와 마주하면 혼자 인생극장을 찍듯 지금 서 있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곤 한다. 여러 갈래로 놓인 길이 결혼과 같은 일생일대 중요한 선택이었다면 그 묘한 회한과 아쉬움, 부질없는 상상도 한층 더 강렬할 것이다. 예순 초입에 들어선 성공한 벤처사업 투자가, 그레이엄은 두 번째 아내와 재혼하고 12년째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계기로 가지 않은 길을 떠올렸다. 그에게 “이혼을 안 했더라면”이라는 가정법을 붙여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의 아내, 오드라였다.

오드라는 외모부터 성격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첫 번째 아내 엘스페스와 정반대다. 키 크고 늘씬한 외모에 여왕 같은 분위기가 가득한 엘스페스는 직업도 그에 어울리는 변호사라 늘 침착하고 냉철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레이엄도 나름 사회에서 잘나가는 기업가였지만 그런 아내에게 기가 눌리는 건 어쩔 수 없었고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는 유쾌상쾌 발랄한 오드라와 만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신세계나 다름없던 오드라와의 연애는 같이 살고픈 마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레이엄은 엘스페스와 이혼한 뒤 오드라와 재혼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가정을 꾸리는 동안 그레이엄은 밝고 명랑해서 좋았던 오드라의 성격이 생활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집에 손님이 없거나 부부가 누군가의 집으로, 결혼식으로, 장례식으로 초대 받아 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사교성이 우주 최고 수준인 오드라는 아파트 오후 경비원도 저녁 식탁에 초대하고, 장 보러 한 번 가려면 길에서 마주치는 지인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한 마디 이상 나눠야 하고, 겨우 장을 다 봤다 싶으면 계산대 직원과 끝없는 수다 삼매경에 빠지는 데다 독서 모임에서 만나 안면 정도만 트 사람도 집에 데려다가 남편이 바람 핀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그런 여자였다. 그레이엄은 다 그러려니 했는데, 사교성이 흘러 넘치다 못해 그 대상이 엉뚱한 곳까지 뻗은 것이 문제이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엘스페스와의 친해지겠다고 선언한 것

이다.

문제의 발단은 그레이엄과 오드라의 열살 짜리 아들 매튜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그레이엄이 내성적인 편이라 해도 사교 여왕인 엄마가 있는데 사회성이 심하게 부족하고 아스퍼거 증후군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어린 아들은 갑자기 종이 접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부는 아이가 처음으로 깊은 열정을 보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야말로 모자이크처럼 나이도 성별도 무궁무진한 종이 접기 클럽 회원들을 감당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튜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사귀는 일도 순탄치 않아 머리를 싸매는 것으로 모자라, 오드라는 무슨 도움이라도 될 줄 알았는지 뜬금없이 엘스페스에게 연락해보라고 그레이엄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아내 등쌀에 못 이겨 수년 만에 연락이 닿은 전 와이프는 놀랍게도 초대에 응해 두 사람의 집을 찾아오고, 단발적인 행사로 끝날 줄 알았던 이 기묘한 만남은 여러 번의 저녁식사로 이어지더니 쉬는 날도 함께 놀고, 늦은 저녁까지 셋이 함께 둘러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는 아주 절친한 관계로 급속히 발전한다. 그저 어안이 병병했던 그레이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질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만약 엘스페스와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토록 완전히 다른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드라를 택한 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세상에 ‘옳은 선택’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웬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남자, 전혀 아랑곳없이 점점 친해지는 두 여자, 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배꼽 잡는 유머와 웃음 뒤에 사랑과 결혼에 관한 특별한 고찰,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관계가 얼마나 한 순간 허물어질 만큼 허약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섬세한 분석이 담긴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하이니(Katherine Heiny)는 뉴요커, 애틀란틱 등 여러 간행물에 소설을 기고해 왔다. 단편 모음집 『Single, Carefree Mellow』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제목 : NOIR
가제 : 누아르
저자 : Christopher Moore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
장르 : 소설/SF 소설



-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ECONDHAND SOULS, LAMB**의 작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코믹 판타지 작가가 선보이는 신작
- * 독일 판권계약 체결

1947년 샌프란시스코, ‘살의 살론’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바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바텐더 새미가 한가롭게 잔을 닦고 있을 때,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단골 중 한 사람인 남아프리카 무역선 선장에게 곧장 눈짓을 보낼 만큼 매력이 넘치는 그 금발의 글래머는 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희끄무레하기보다 진한 금색이 돋보이는 곱슬머리 금발을 늘어뜨리고 어딘가 색이 조금 바랜 듯한 빨간 입술을 가진 여자는 주변을 훑 둘러보았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애매한 시각이건만 바 안은 평상시처럼 사기꾼들이며 도박꾼들, 낯술에 이미 만취한 사람들, 부두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 선원들, 정말이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놈들과 동네에서 꽤 똑똑하다고 인정 받는 놈들까지 골고루 다 모여 있었다. 다행히 조금 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둔 덕에 실내공기가 조금 깨끗했지만 이내 이들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에 공기가 탁해지고 시끄러운 잡담에 소음까지 자욱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새미는 재빨리 바 곳곳에 눈길을 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 손에 새미가 걸을 때마다 짚어야 하는 지팡이가 무기처럼 들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를 아는 자들은 금세 그 의미를 알아챘다. 새미가 우락부락하고 포악한 남자는 아니지만 걱정하면 재빨리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손볼 줄 알고 화를 눌렀다가 천천히 폭발하는 타입이라는 것도 웬만한 단골들은 알기에, 싸늘한 경고의 눈빛은 일순간 실내를 너저분한 술꾼들의 집합소보다는 좀 나은 곳으로, 약간은 정돈된 곳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스틸턴이며, 영국 출신인데 모국에서는 치즈 이름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새미보다 몇 살 더 어린 2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앳된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다는 놀라운 사연도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과 직접, 혹은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시대에 그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차 대전 중에 만난 미군 병사와 영국 아가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어 2차 대전에서 남편을 잃은 ‘치즈’는 그렇게 새미의 마음을 사로잡았건만 대화가 한창 무르익어가나 싶을 때쯤 방해꾼들이 나타났다. 바의 주인 ‘살’과 무슨 퍼즐 조각마냥 가슴팍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해군 장군이 들어선 것이다.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차이나타운과 이어진 길목에서 바를 운영하면서도 중국인들을 극히

싫어하는 바의 주인장 살리 가벨리는 다짜고짜 함께 온 그 장군에게 “새미가 당신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에 가느다란 콧수염을 기르고 60대쯤 된 듯한 장군은 거만한 눈빛으로 바안을 둘러보더니, 새미와 이야기를 나누던 ‘치즈’를 향해 느끼한 눈빛을 날렸다. 스틸턴은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을 곧추 세우며 장군에게 꺼지라고 외치고는 또 보자는 인사만 남기고 나가버렸다.

하지만 왠지 잘 될 것만 같았던 예쁜 여성과의 데이트가 불발됐을지언정,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절룩대는 다리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새미에게 선뜻 바텐더 자리를 준 사람이 살리 가벨리고, 그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새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탁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혹은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참전 군인들끼리 당연하게 나누는 인사말, 어디서 근무했냐는 이야기를 건넌 새미는 뉴멕시코 로스웰이라는 곳에서 일했다는 장군의 대답에도 별 감흥이 없었다.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웰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운틴 레이니어 근처에서 처음으로 정체불명의 비행접시가 발견됐고, 이어 로스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총돌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사연을 모두 설명해준 장군을 통해 새미는 이 미스터리로 한 발 들어서고, 힘들게 누르며 버텼던 과거의 비밀들, 절대 끄집어내지 말라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어두운 기억과 마주한다.

레이먼드 찬들러(Raymond Chandler)와 데이먼 러니언(Damon Runyon)의 작품세계가 결합된 것 같은 독특한 하드보일드 식 소설에 세밀한 관찰에서 비롯된 위트가 녹아 있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무어(Christopher Moore)는 코믹 판타지 분야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소설가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 사진 전문 학교인 브룩스 인스티튜트에서 공부를 마쳤다. 1992년 데뷔소설 『Practical Demonkeeping』을 시작으로 『Fool』, 『Sacre Bleu』 등 평범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갈등을 겪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발표했다. 국내에도 『Bloodsucking fiends(번역서: 흡혈광 녀석들)』 등 ‘뱀파이어 러브스토리 시리즈’ 등이 번역 출간됐다.

NON- FICTION

제목 : RETURN OF MARCO POLO'S WORLD

가제 : 마르코 폴로가 본 세상, 다시 떠오르다

저자 : Robert D. Kaplan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

장르 : 에세이/정치학



- * 「외교정책(**Foreign Policy**)」지 선정 ‘전 세계 최고의 사상가 100인’에 두 번 포함된 지정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 겸 실무자가 분석한 21세기 세계 정세
- * “복잡한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우아하고 흡입력 있게, 예지력을 담아 설명하고 향후 수십 년간 미국에 발생할 영향을 분석한 귀중한 가이드.” –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 빌 번즈

유럽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아시아와 통합된 ‘유라시아’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이 거대한 대륙이 전 세계 무역과 갈등의 단일 중심점으로 떠오르는 동안 작은 지역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웨스트팔리아 식 체제는 그 힘을 잃고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로 대표되는 제왕 정치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는 추세다. 중앙 유럽에서 나타나는 위기와 중국 중앙부에서 벌어지는 한족 간의 갈등이 서로 연계되는 조짐도 나타난다. 이런 복잡미묘한 세계 정세의 변화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 변화와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과 메시지를 기고해온 저자는 대담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실을 꿰뚫는 특유의 통찰력이 담긴 에세이 16편으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한다. 그 동안 신문과 간행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표한 에세이와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담은 이 모음집은 불필요한 감정적 측면은 일체 배제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찾아온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와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냉전 이후 유럽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로 양분된 세계 권력은 수십 년간 힘을 키워가며 북쪽으로는 발트해, 남쪽으로는 흑해에, 중앙 유럽과 동유럽에 이르는 넓은 영역까지 세력을 뻗어갔다. 철저한 차별과 배척으로 결국 무너진 나치, 소비에트 연방과 달리 인종이나 종교가 무엇이든 모든 인간을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민족국가보다 법률을 수호하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두 권력은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발달했다. 그러나 이제 이 양대 권력이 다시 무너지려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 푸

틴의 등장으로 성장세에 오른 러시아, 나날이 드러나는 중국의 공격적인 영향력 등 저자는 해외 특파원, 종군기자로서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이 에세이에서 이 새로운 세계 정세의 변화가 향후 어떤 미래로 이어질 것인지 분석하고, 투키디데스, 손자가 기록한 역사를 되짚어 현재의 변화에 비추며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서구 사회 식민주주의의 한계, 미국이 벌인 전쟁이 남긴 엄청난 대가, 미국의 관심사와 미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격차, 해군력을 더욱 막강하게 키워야 하는 이유 등 미국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인 방향도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세히 제시한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계 정치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한 유익한 자료이다.

<목차>

전략

1. 마르코 폴로가 본 세상의 귀환, 미군의 대응
2. 전쟁을 피하는 기술
3. 미국 외교정책의 비극
4. 우아한 추락: 점점 높아지는 해군의 중요성

전쟁과 그 대가

5. 다시 보는 베트남 전쟁
6. 이라크: 현실에 반하는 게임
7. 망가진 국내 전선
8. 더 큰 명예는 없다

사상가들 (9- 10장)

뒤돌아보기 (12- 15장)

돌아온 마르코 폴로 (16장)

<저자 소개>

로버트 D. 캐플란(Robert D. Kaplan)은 『Earning the Rockies』, 『In Europe's Shadow』, 『Asia's Cauldron』, 『The Revenge of Geography』, 『Monsoon』, 『The Coming Anarchy』, 『Balkan Ghosts』 등 외교정책과 여행에 관한 저서를 열일곱 권 발표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신미국 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소속 연구원,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으며 「애틀랜틱(The Atlantic)」에 30년 이상 글을 기고해 왔다. 미 해군사관학교 국가안보 부문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미 국방부 방어정책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제목 : IN WRITING

가제 : 글쓰기와 심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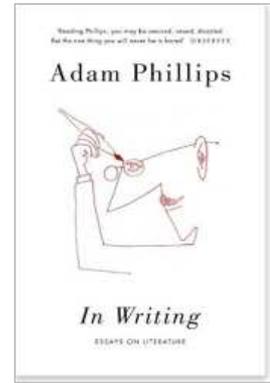
저자 : Adam Phillips

출판사: Hamish Hamilton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문학이론/심리학



- * “글쓰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집합체와 같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입증한 에세이”
- 「가디언」
- * 심리 분석가이자 문학 전문가인 독특한 이력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두 분야의 절묘한 어울림

프로이트를 비롯해 그를 따른 후대의 정신분석 학자들은 시와 시인들을 인간의 심리분석을 탐구하는 소재이자 대상으로 적극 활용했다. 시와 시인 모두 본격적인 심리분석 결과가 도출되기 전 결말을 암시하는 일종의 전조이자 비공식적인 분석의 자료로 활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 즉 문학이 정신분석학의 원리나 개념을 활용한 사례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독자들의 마음을 와락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내포한 문학 작품들에는 분명 심리분석과의 연결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낀 저자는 바이런부터 롤랑 바르트, 셰익스피어, 시볼드 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 독특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로 두 분야가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책에서 하나하나 설명한다.

글은 왜 쓰는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서 탐구를 시작한다.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보통 글을 직접 ‘쓰는’ 일은 읽는 것만큼 즐거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목적 혹은 목표가 담겨 있을까?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은 글을 쓰고, 그런 존재가 없다면 생겨나게끔 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작가 개인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 생각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을 찾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이나 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 그 관심을 표명하도록 이끄는 것이 작가들이 글을 쓰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 목표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공감과 관심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 감정, 서로 간에 오가는 대화, 크게는 삶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분석과 문학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바라는 삶을 진지하고 내밀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에 접점이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작가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작품 속에는 심리분석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심리분석학이 사람들이 읽고 쓰는 행위에 미친 영향과 이를 통해 삶 전체에 남긴 흔적을 여러 작품과 작가들을 통해 살펴보고, 순수 심리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문학을 통해 제공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하고 싶은 말에 반드시 누군가가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동의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말로 생각을 밝힐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분석의 기본 원칙이고, 문학은 작가가 비슷한 생각을 지닌 누군가를 찾기 위해 시작한 창작 활동이지만 자신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타나는 자기 발견 작가가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한 가장 순수한 감정, 그것을 작품에 담아내거나 타인의 감정처럼 훔내 내어 묘사하는 기술이 한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 담겨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문학과 심리분석의 연관성과 상호 영향력을 흥미롭게 분석한 책이다.

<목차>

시인들의 심리분석

H. D에게 바치는 헌사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

약력과 다른 점

존슨이 본 프로이트

바이런의 도주

에머슨과 양식의 불가능성

클로프의 '정사(Amours)'

T. S 엘리엇과 '인간의 영혼', 그리고 심리분석

이삭 로센버그의 영국

제논에게 없었던 것

시볼드를 기리며

위니콧의 학습

행릿과 복수

「파리 리뷰」 인터뷰

부록: 프로이트를 번역하면서

<저자 소개>

애덤 필립스(Adam Phillips)는 런던 체링 크로스 병원에서 아동 심리상담가로 일하다가 현재는 심리분석가 겸 요크 대학교 영문학과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Unforbidden Pleasures』, 『Missing Out』 등 심리분석과 문학 비평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발표했다. 펍권 출판사의 프로이트 번역서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왕립 문학학회 회원이다.

제목 : EXTREME CITIES

가제 : 극단에 선 도시들

(부제: 기후변화 시대 도시 생활의 위기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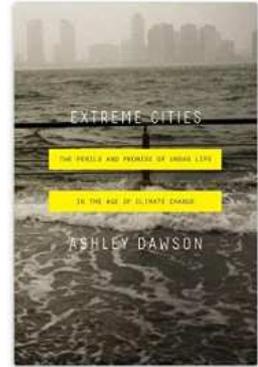
저자 : Ashley Dawson

출판사: Verso

발행일: 2017년 10월 1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환경



*** 기후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요인이자 다가오는 기후 위기의 제일선에 선 도시들**

*** 지구 온난화의 현주소와 도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한 책**

기후 변화는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절감하게 될 부분은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의 위기가 엄청나다라는 전망은 이어지는데, 현재 우리는 그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상 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허리케인이나 홍수, 극심한 가뭄이 이례적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이런 의문이 든다. 저자는 이 거대한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 도시에 주목하고 이 궁금증을 해소해줄 답을 이 책에서 고찰해 본다. 실제로 도시는 대기를 메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주된 원천이자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악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전 세계 거대 도시 대다수가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과 뒤이을 홍수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도 큰 우려를 낳기에는 충분하다. 게다가 호화 콘도가 해변 지역에 나날이 늘어만 가고 산업 시설도 줄줄이 해안가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 또한 더 큰 우려를 더한다. 저자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한 세계 곳곳의 도시들을 살펴보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뉴욕 스탠튼 섬이 마련한 대비책, 알래스카 시쉬마레프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 해수면과의 싸움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네덜란드의 대비 모형,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가 덮친 후 뉴욕 시의 변화와 그 이전의 모습 등이 상세히 제시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다를 기준으로 200 킬로미터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5년이 되면 75 퍼센트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은 점점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지면서 도심지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던 열섬 현상도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메마른 지역을 떠나 홍수, 태풍에 취약한 해안가 도시로 주거지를 옮기는 주된 이유로도 작용한다.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의 도시 풍경을 바꿔놓고, 그 결과를 오롯이 떠안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저자는 현재 촉박한 기후 변화의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거나 위협 받고 있는 여러 도시들의 사례와 기후변화, 조경 분야 최신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이 위기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점검한다. 방파제를 더 많이 세우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는 대신 도시 전체를 변화하는 기후에 맞게 다시 건립하고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것 없이 균형과 조화가 강조된 생활 공간으로 변신하려는 근본적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많은 곳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기후 변화의 위험을 실제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와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분석서다.

<목차>

머리말: 극단에 도달한 도시

1. 자본의 침수
2. 환경의 역류
3. 바다의 변화
4. 회복력이라는 용어
5. 기후 차별정책
6. 재난 공산주의

결론: 도시의 미래

<저자 소개>

애슐리 도슨(Ashley Dawson)은 뉴욕 시티유니버시티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Extinction: A Radical History』가 있다.

제목: DISRUPTIVE TECHNOLOGIES

가제: 혼란스러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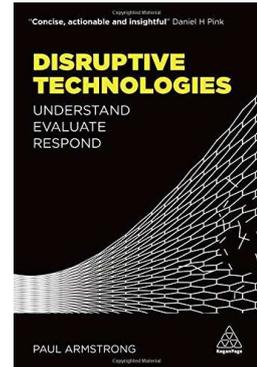
저자: Paul Armstrong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17년 5월 3일

분량: 216 페이지

장르: 공학(기술)/비즈니스



- *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글에 곧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목할 만한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Freaks Shall Inherit the Earth*』의 저자 크리스 크로간
- * “임박한 미래, 거대한 혼란 이후의 대책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기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귀중한 가이드” – 미래학자, ‘퓨처 에이전시(*The Futures Agency*)’의 저자 게르트 레온하르트

페이스북이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없었던 세상, ‘우버’라는 건 독일어로 ‘위에’라는 뜻이고 알리바바는 동화에 나오는 도둑 외에 다른 의미는 없었던 시절, 우주 여행은 공상과학 문화에나 등장하고 전화기는 통화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는 거의 없었던 때를 잠시 떠올려보면 느낌상 굉장히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채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인류 역사에서 급격한 변화는 정치적인 이유나 인구군의 급격한 변화, 자연 선택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그러한 공통점 대신 새로운 요소로 매개되었다. 바로 ‘기술’이다.

기술은 현대사회가 맞이한 엄청난 변화의 주된 동력이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의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드러나는 곳은 물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똑같이 20-30년이 지난 뒤에는 현재의 기술 또한 ‘그런 때가 있었나’ 가물가물해지는 아주 낯선 ‘옛날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기술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저자는 산업체가 계속해서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지금 현재 속속 생겨나는 기술로 미래의 고객에 대비하는 방안과 더불어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기술을 반드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감 있게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지식과 틀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비트코인, 인공지능, 그래핀, 나노기술과 같은 대표적인 신기술과 더불어 공유 경제, 모바일 기술의 침투력, 밀레니엄 세대로 구성된 노동력, 전체 인구군의 노화 등 산업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 서비스와 제품 개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개개인은 물론 산업계도 쉼 없이 바뀌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저자는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각 산업체가 그러한 세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기술로 인해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한 혼란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소비자와의 관계나 기업의 생사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이 같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TBD(기술, 행동, 데이터)’ 전략을 제

시한다. 조직 운영 체계에 유연성을 키우고 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목표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TBD 전략의 핵심원리, 구체 적인 활용 방법이 함께 소개 된다.

신기술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수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업체들, 정부 기관에 자문을 제공해온 저자는 각 업체가 기술발달에 현재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평가법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잠재적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1.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
2. 혼란을 일으키는 신기술: 잔인한 진실
3. 예측 오류
4. TBD(기술, 행동, 데이터) 체계: 서론
5. 복합 TBD
6. 어떻게 끝내야 할까
7. 사업과 혁신의 개방
8. 조심해야 하는 것
9. 혁신의 거부
10. 혼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11. TBD의 미래와 혼란스러운 기술

<저자 소개>

폴 암스트롱(Paul Armstrong)은 소셜미디어, 기술 전략 전문가로 현재 기술 자문업체 'HERE/FORTH'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스페이스, 소니, 액티비전 등의 업체에서 경력을 쌓고 영국으로 돌아와 글로벌 미디어 업체인 마인드 쉐어(Mindshare)에서 사회적 기술 팀을 지휘했다. 대기업, 스타트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강연을 실시해 왔으며 「포브스(Forbes)」 칼럼리스트, 영국 정부의 디지털 전략 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목 : MANAGING TO MAKE A DIFFERENCE

가제 : 차이를 만드는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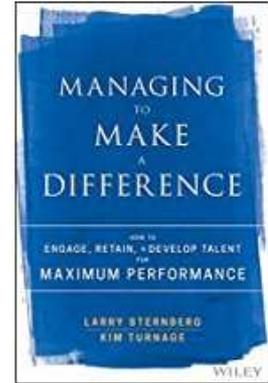
저자 : Larry Sternberg and Kim Turnage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 * “팀원과 관리자, 선임 관리자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중심을 다시 잡고 두려움 없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 베스트셀러 『**Fearless Leaders**』의 저자 캐시 그린버그
- * “구성원의 업무 참여시키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이끄는 틀을 제공하여 모든 리더가 최상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책이다” – 하먼 매니지먼트(**Harman Management Corporation**) 부대표, 제레미 디믹

위에서 시키는 일도 겨우겨우 해내던 시절을 지나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는 건 커리어 개발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점이자 기뻐할 만한 일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이 늘어나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탄탄해지고, 영향력도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중간 관리자들은 승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위아래 양쪽에서 혹은 그 이상에서 몰려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는다. 리더가 되었지만 누군가를 ‘리드’하는 일보다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그 와중에 팀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리더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 재능과 능력을 두루 갖춘 관리자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된다. 왜 출중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한 사람들이 관리자의 자리에 오르면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도, 리더로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만 내는 일이 빈번할까? 경영 컨설턴트로 최고 경영자, 상급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두 저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고된 역할을 짊어진 중간 관리자들이 팀을 원만히 리드하고 스스로의 역량도 키우는 실용적인 기술과 팁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좋은 관리자’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진심으로 잘 이끌어준 사람으로 떠올리는 관리자든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재능이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열정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이끌어준 사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고 무슨 상이나 보너스를 받았는지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신뢰, 멘토, 코치, 영감, 경청, 공감, 친구와 같은 단어가 언급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면서도 팀원들이 각자의 몫을 원만히 해내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적절한 틀이 필요하다. 두 저자는 협력과 결합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리더십에 관한 검증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구성원의 업무 참여를 독려하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십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

한다. 업무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례들과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면하는 경영상의 해결 과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구성원들이 시큰둥하게 그저 ‘돈 벌려고’ 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도록 리드함으로써 자연스레 큰 성과를 내도록 중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조언과 팁, 근거 없는 팀 내 구설이나 소문을 차단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전략, 실수하고 흔들리더라도 공통 목표를 향해 다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방법 등 관리자의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하다.

<목차>

머리말

- 1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라 (1- 12장)
- 2부. 사람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법 (13- 19장)
- 3부. 참여와 의욕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20- 29)
- 4부. 범상치 않은 팀으로 만들어라 (30- 43장)
- 5부. 조직 문화의 틀을 잡아라 (44- 61장)
- 6부. 변화를 수용하라 (62- 68장)
- 7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라 (69- 79장)

<저자 소개>

래리 스텐버그(Larry Sternberg)는 경영 컨설팅 업체 ‘Talent Plus’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수 천 명의 회사 경영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왔다.

김 턴에이지(Kim Turnage)는 ‘Talent Plus’의 선임 컨설턴트로 개인 역량 개발 방법과 재능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도해 왔다.

제목 : EMBRACING THE END OF LIFE

가제 : 생의 끝도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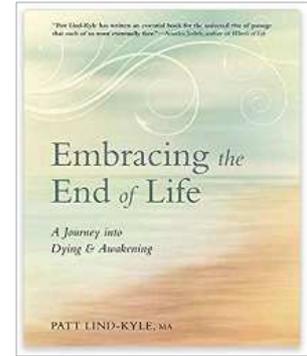
저자 : Patt Lind- Kyle

출판사: Llewellyn Publications

발행일: 2017년 9월 8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인간의 가장 다정한 면, 각성의 능력을 깨우는 초대장과 같은 책. 현명한 삶에 관한 지침서” – 『**Spiritual Liberation**』의 저자 마이클 버나드 백워스
- *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 이 책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시간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Goddesses Never Age**』의 저자 크리스티안 노스롭

티벳 불교의 유명한 승려 소갈 린포체는 “사람들은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채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이 지나갈 수 있는지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는 개인의 분노나 억울함,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이 삶의 주기 중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거대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을 거스르고 싶은 욕구로 변형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창의성을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자연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무분별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발전, 그리고 자연의 생존을 위해서도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과도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 다가간 순간 깊은 명상으로 두려움과 위기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불가능한 욕심, 즉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무작정 거부하고 겁내는 대신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죽음이 찾아오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단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을 그저 흘러 보내는 대신 또렷하게 깨어 있는 상태로 현재를 오롯이 살아갈 때 죽음의 공포를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자가 35년간 명상을 실천하면서 체득한 몸과 마음, 정신의 지혜에 관한 깊은 통찰이 녹아 있는 이 지침서에는 막막한 두려움이 피어나는 근본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삶의 각 단계마다 변화하는 뇌기능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설득력 있는 방법이 소개된다. 특히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왜 그런 감정과 믿음이 생겨났는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는 내면으로의 탐구 과정을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감정을 직접 가라앉히고 그 자리를 수용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채워서 죽음이 라는 낯선 영역에 용감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정신적인 준비 외에도 요양시설과 서

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법적인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법, 다양한 종교의 관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방법 등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제시된다.

‘죽어 본’ 사람은 없기에 누구에게나 죽음으로 가는 길은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 불확실함이 삶을 더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큰 두려움을 낳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여정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대신 스스로 준비하고,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가 된 것처럼 용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이끌어주는 특별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우리는 왜 인생의 마지막을 궁금해할까

1부. 죽음을 준비하는 법

- 1장. 신체적, 심리적, 영적 죽음
 - 2장. 1단계: 단계별 저항
 - 3장. 1단계: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
 - 4장. 2단계: 저항에서 수용으로
 - 5장. 2단계: 죽음의 준비: 영적인 측면
- (9장까지 구성)

2부. 자유를 향한 여정: 인생 가이드

- 10장. 자아의 발달과 구조
 - 11장. 자아의 에너지원
- (15장까지 구성)

3부. 자유의 길 (16- 19장)

맺음말

<저자 소개>

팻 린드 카일(Patt Lind- Kyle)은 저술가이자 치료사, 강연자,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저서 『Heal Your Mind, Rewire Your Brain』는 독립출판사 골드 메달 어워드(Independent Publishers Gold Medal Award)를 수상하고 「USA Book News」에서 최우수 도서상을 수상했다.